

해양 영토 지키는 독도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난중일기를 읽고

전대산

내가 이번 여름방학동안 읽은 여러 권의 책 중에서도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킨 책이었다.

지금 내가 사는 목포에도 이순신 장군에 얽힌 문화유적이 몇 군데 남아
있다. 목포의 지붕이나 다름없는 유달산에 가면 노적봉이 있고 만호진의
흔적이 복원 공사중에 있으며 가까운 고하도에 전투에 사용할 배를
만들어 숨겨 놓았다는 굴이 여러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사는 목포와도 인연이 깊은 이순신 장군이기에 장군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난중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내가 읽은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8일까지
기록된 책으로 아쉽게도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혹 어떤 날에는 쓸거리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힘들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날씨만 적고 만 것도 있었고 내가
책에서 배운 왜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날에는 제법 긴 분량으로 그날의
일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날의 전투
모습을 머리속으로 상상 할 수 있었다.

만약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후손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적힌 난중일기는 요즈음 들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기록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본보기 같았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략을 잘 세운 장군의 모습이기 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어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적과 싸우는 장군이라면 어딘지 산도적처럼 무섭고
정이라곤 눈썹만치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틈틈이 편지를 통해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을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 보였다.

더구나 이순신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았던 충남 아산에서 전남 여수로
집을 옮긴 이유도 알고 보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더

많이 찾아 뵙고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은 효성스런 마음 때문처럼 보였고 같이 왜적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아들인 면이 나이 많은 자신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먼저 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내가 난중일기에서 만나 본 이순신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난중일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수시로 '밤에 땀을 많이 흘렸다', '앓았다 누웠다'라고 기록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순신은 평소에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왜적의 침입으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적을 물리칠 전략을 세우고 일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 누명을 뒤집에 쓴 채 억울함을 꼭 참고 백의종군을 한 것을 보면 이순신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 보였다. 아마 이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건강을 핑계 삼아 목숨이 오가는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빠져 보려고 한번쯤 나쁜 마음을 먹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삼도수군을 지휘한 것은 나라사랑 정신이 철저했던 이순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더구나 원균을 비롯한 아랫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싸우는 곳마다 나타나 화살이나 탄환에 맞아 죽은 왜인들의 머리 베는 일을 도맡아 하며 마치 자기 혼자서 왜군을 많이 죽인 것처럼 공적을 쌓으려 하는 원균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어찌면 원균이 훗날 이순신을 모함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난중일기를 읽어보니 충무공 이순신도 모두 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라의 제삿날은 요즈음으로 말하면 국경일이라 공무를 보지 않고 넘어 갈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제삿날에도 공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내 생각에 잘못처럼 보였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나라의 공무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불편 했을 수 있 을것 같은 같았다. 나는 배에서 달려온 종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자 방을 뛰쳐나가 슬퍼 뛰며 뒹굴었더니 하늘에 솟아 있는 해조차 캄캄하였다는 일기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으면 그리 하였을까? 생각하니 어머니를 여원 장군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그럽고 슬퍼서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었는데도 빨리 죽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구절을 읽으며 이순신은 효자중의 효자였다는 사실 앞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는 오늘 충무공 이순신이 쓰신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고 억지
누명을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임금을 비롯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들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마음가짐은 걸핏하면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고 본받아야 할
값진 교훈 같았다.

이제 우리의 남해 바다를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낸 이순신 장군은
가고 없지만 이순신 장군의 우리 바다 수호정신과 나라 사랑 가득 찬
충성심을 오늘에 본받아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해양 영토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해 보았다.